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에이크하우트(Gerbrand van den Eeckhout, 1621-1674)
1658, 캔버스에 유채, 61x79cm
아일랜드국립미술관 소장

입당송 |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
으오리다.

제1독서 | 신명 18,15-20

화답송 | 시편 95(94),1-2,6-7,11,17-19(◎ 7과 8과)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
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
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
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
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1코린 7,32-35

복음환호송 | 마태 4,16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 마르 1,21-28

영성체송 |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류지인 야고보 신부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들리는 것과 들을 소리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새벽 수도원 종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을 꽤나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녹장을 부린다면 아침 기도 시간에 늦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의 물기를 닦을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지각은 면했으나 험쩍이는 숨소리가 다른 형제들의 잠심을 깨뜨리고, 누르지 못한 머리의 까치집은 기도 시간 내내 저의 분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소리에 담긴 부르심에 귀를 달아버린 결과입니다. 귀는 언제나 열려 있기에 구조적으로 소리를 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소리와 흘려버리는 소리가 공존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영혼에는 모름지기 각자의 귀마개를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신명 6,4)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지녀야 할 ‘들음’에 대한 연속된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들어야 함을 알면서도 듣지 않는 행실의 반복이 있고,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신명 18,16)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청원에는 반대로,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체득한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뢰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 꿰어진 단추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며 바로잡는 과정은 시작점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역사를 이루고 있는 단순한 가르침이 발견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신명 18,15) 따라서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유효하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의 말씀 뒤로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과오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았던가요?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구사하며 예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으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르 1,24)라며 하느님과 철저한 분리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작태를 통해 자신이 ‘들음’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어긋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대등하게 엮고 있는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일을 걱정하는 것’과 ‘마음의 갈라짐’(1코린 7,33-34 참조)이 극치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들음은 따름으로 이어지지만 듣지 않음은 관계의 단절은 물론 존재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을 다하는 순간 가장 마지막까지 기능하는 감각은 청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느님께 받은 선물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생 어떠한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



예수님께서 나자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연극에서 강한 조명을 주인공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 화가는 예수님께 밝은색을 사용하고 주변은 어둡게 처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다음 장면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영이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마르 1,24)라고 외치는 장면 말입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화해설

삶의 나침반



차승원 요한 | 배우

저는 부모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형과 제가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어느 부유한 가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애정의 중심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삶을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느님을 찾아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저의 삶에도 어머니의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만났기에, 제가 즐겁거나 행복할 때, 힘들거나 슬플 때 성당을 찾는 데는 어머니, 당신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느님과 항상 가까우셨던 어머니는 자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스스로 배움을 터득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면,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아, 이걸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라고 이해하게 되고, 언제나 지혜롭게 해결할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마냥 방목하지만은 않으셨던 어머니의 노고가 '아빠'가 된 지금,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로 얻으신 나침반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제게 작용했고, 또 그것이 저와 아내, 아이들 일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행복, 어느덧 성인이 된 자식과 여전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행복, 나의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행복.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게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을 살아가고, 일할 힘을 얻게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집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보다 가족을 위한 선물을 받으면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루틴한 일상일지라도 행복, 그 자체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만큼의 화목했던 기억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득 딸아에게서 제 어머니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의 부모님도 조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저도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자랐듯이 제 자식도 저를 보고 그대로 자라겠지요. 그 거울에 깨끗하게, 바른 모습만을 비출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저의 부모님을 감히 닮아보려 합니다.

특별하게 꾸미지 않은,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가 진심이셨던 당신을 떠올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지금의 제게 다시 한 번 어머니를 향한 존경스러운 마음이 벅차옵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자라며 배웠던 '믿음'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늘 함께했던 당신들이 저에게 그랬듯, 저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나의 예쁜 구석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쁜 구석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마가 동그래서 예쁘고, 어떤 사람은 속눈썹이 촘촘해서 예쁩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통통해서 예쁘고 어떤 사람은 손톱에서 윤이 나서 예쁩니다. 예쁜 구석은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씨가 고와서 예쁘기도 하고 행동이 민첩해서 예쁘기도 합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예쁜 구석은 왜 그리 보기 어려운 걸까요? 특히 청소년기에 자기를 긍정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소년 소설 《고요한 우연》의 주인공 수현이처럼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 수현이는 스스로를 평범하고 심심한 사람이라 규정합니다. “눈도 그냥그냥, 코도 그냥그냥, 입도 그냥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하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색이 바랜 사진처럼 희미한 얼굴”(14쪽)이 수현이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입니다. 이름까지 평범해서 이수현이 아닌 ‘이수현B’가 더 익숙한 수현이의 시선은 종종 특별해 보이는 친구들을 향합니다. 어디에서나 모두의 주목을 받는 은고요, 언제나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한정후.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수현이는 선망하고 동경하던 그들의 속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봐 온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수현이는 예쁜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상황 앞에서 크게 목소리 낼 용기는 없지

만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동물을 무서워하지만 비오는 날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이 수현이의 빛나는 재능이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주어서가 아니라, 시도하고 경험하고 통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수현이는 자기 모습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청소년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찾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지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풀어가면서, 소속된 집단에서 역할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몫을 해나가면서, 종교나 정치, 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색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보면서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갑니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까지의 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길에는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여정 끝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나 자신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가볼 만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은 혼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말고, 열 걸음쯤 뒤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지칠 때 가끔 곁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소년이 ‘나의 예쁜 구석’을 멋지게 찾아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다스리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다른 데서도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매달 신학생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시작과 마치는 면담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영성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이 '이번 학기에는 영성 생활에 더 마음 써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학기를 마치면서는 '이번 학기에도 영성 생활에 소홀했다.'라고 반성을 많이 하죠. 늘 반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새해를 맞아 세우셨던 결심을 잘 지키고 계시는가요? 하느님과 함께, 올 한 해 기쁘게 영성 생활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도 잘 세우셨나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늘 있는데, 왜 잘 안될까요? 하느님을 닮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자기 모습을 돌이켜 보면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제대로 못사는 모습만 잔뜩입니다. 왜 늘 반복일까요? 영성 생활이 뭔지 잘 몰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때론 잘 아는 데도 왜 그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심리학을 '동기의 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생각과 달리 내 마음은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지요. 심리학 하나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움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

과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상생활과 영적인 삶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일상생활이든 영적인 삶이든 그 삶을 사는 이는 같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삶에는 성령의 이끄심과 은총의 작용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만,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 영성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심리를 통하는 영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 요량입니다만 먼저 도움 될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많은 경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든 영적인 삶에서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힘들 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라고 물어보고 기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출렁이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내가 정말 바라면 좋을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찾게 될 마음이 생기죠.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얻고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마르 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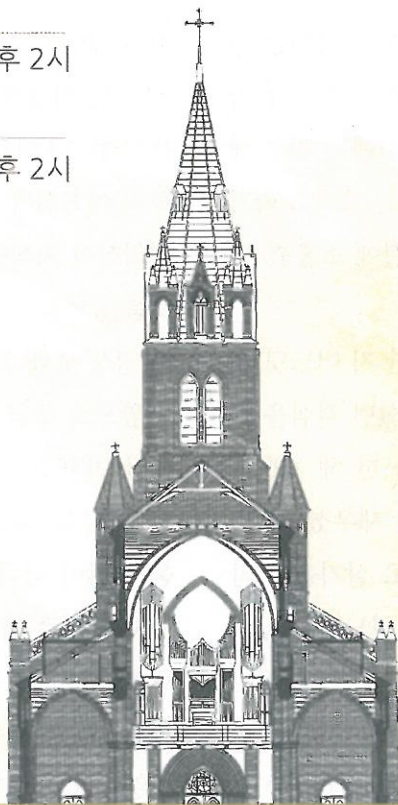
상단 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서울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사제 서품식
2024년 2월 2일(금) 오후 2시

부제 서품식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서품식은 가톨릭평화방송과
유튜브cpbcTV에서 생중계합니다.
그림 출처: 문화재청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울골음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25.21)

서품식 참석 안내

| 서품식장 내부 |

- 명동성당 내부에는 사제단 및 초대받은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명동성당 내부에서는 전례 중 개별 사진 촬영 및 휴대폰 통화 등이 불가능합니다.
- 서품식을 진행하는 명동성당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성전 내부가 아닌 패밀리아 채플, 프란치스코홀, 고틀홀, 영성센터 및 교구청 건물을 수품자 본당 좌석으로 배정했습니다.
※ 각 본당 구역 입장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열 기구 및 LPG 가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성모동산에 자유석 500석을 마련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행사 후,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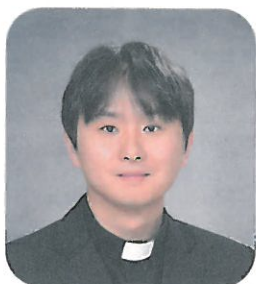
- 행사 당일 교우분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제 수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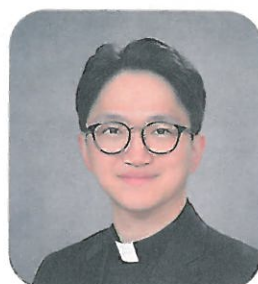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15명 · 레뎀토리스 마떼르 선교 신학원 1명



공덕환 바오로
번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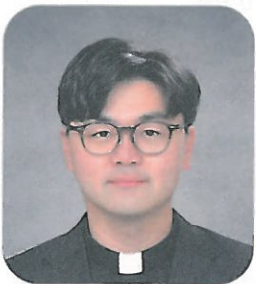
성연준 가브리엘
용산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임춘기 프란치스코
개봉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0시30분



조인규 마르첼로
천호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하태성 요셉
둔촌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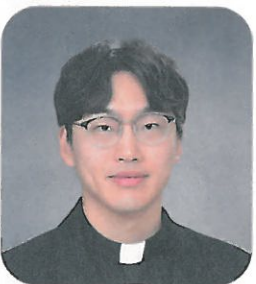
왕원동 대건안드레아
행당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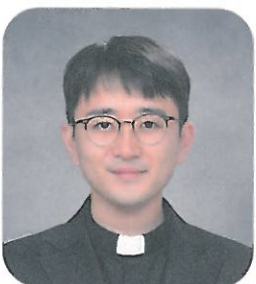
변상현 유스티노
고척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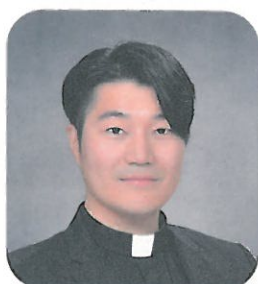
박민준 가브리엘
동작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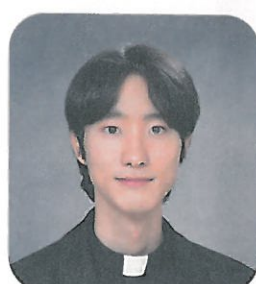
황준호 자선토마스
장안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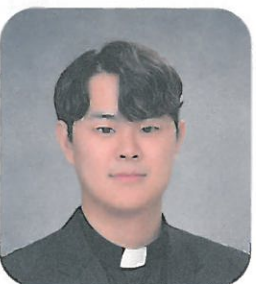
김학수 바오로
성산2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유상준 베르나르도
잠실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이한길 바오로
창4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봉원민 브루노
우이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김경태 마르티노
성수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최민석 베드로
미아동성당
2월 4일(주일) 오전 11시



세베로 이사악 이사악
레뎀토리스 마떼르 선교 신학원
2월 3일(토) 오후 6시

부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23명 · 레뎀토리스 마떼르 선교 신학원 1명 · 수도회 3명

이름	세례명	본당	이름	세례명	본당
김동준	갈리스토	성산동	안환준	바오로	목4동
최성훈	바오로	목 동	오우석	스테파노	신월동
강명균	미카엘	옥수동	정명균	비오	신사베드로
최선광	마티아	대방동	김형섭	가브리엘	신월동
구본정	바오로	오류동	김 산	세례자요한	혜화동
박정찬	알베르토	역삼동	최영환	세례자요한	신정3동
김지훈	스테파노	양 천	김용우	세례자요한	고덕동
송상윤	스테파노	쑥고개	최원영	스테파노	신림성모
정현엽	베드로	창4동	박재준	브루노	양 천
박성준	가브리엘	성산동	후안 파블로	바오로	레뎀토리스 마떼르 선교 신학원
이도영	바오로	일원동	백건현	미카엘	말씀의선교 수도회
노동진	세례자요한	목4동	김수명	마네스	도미니코 수도회
류호준	안드레아	삼성동	권성환	비오	도미니코 수도회
강민수	안셀모	가락2동			

사제 · 부제 수품자를 위한 기도

-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들을 부르고 파견하시어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날로 풍성하도록 이끄시나이다.
- 이제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생을 오롯이 바치며 살아갈 봉사자로 뽑으신
새 사제 · 부제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나이다.
-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하나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에 헌신하여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 주님, 청하오니 새 사제 · 부제들과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 이 땅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아멘

소식

오늘(1월 28일)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2003년부터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2월 2일(금) 주님 봉헌 축일은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2월 3일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52세)
- 2018년 2월 4일 김용화 바오로 신부(62세)
- 2022년 1월 31일 김성태 요셉 신부(82세)

교구청 알림

2024 창세기 탈출기 특강(사목국)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 조창수 신부
 내용: 창세기 탈출기(성경 지참)
 때, 곳: 2월1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8889-5425(문자)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2월8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집전: 박형문 신부(콜롬비아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순 개인전: 1전시실
 이도경 개인전: 2전시실
 reflection 강진기·김민숙·류재영·박정란: 제3전시실
 전시일정: 1월24일(수)~2월1일(목)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주재어, 독후감 공모전

주제: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기원 및 현양 / 응모자격: 청소년부, 일반부
 응모기한: 1월28일~4월28일(접수분까지)
 상세안내: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참조 / 문의: 02)2269-0413

2023~2024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신자 / 분량: A4 2장 이상
 마감: 2024년 3월17일(일)까지 /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2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www.clak.or.kr) 참조
 문의: 02)777-2013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약혼자 주말

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생활 준비(금~일 2박3일)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혼인 1년 미만의 신혼부부 / 회비: 커피당 38만원
 접수: 선착순 13커피당(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약혼자주말' 참조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7 서울 WYD 희망의 산티아고 순례단 모집

대상: 2008년~1989년생 서울대교구 활동 청소년 및 청년 / 문의: 02)727-2341(월~금)
 때: 7월13일(토)~24일(수) 11박12일
 곳: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보 110km) 및 바르셀로나, 포르투갈 파티마 / 모집인원: 24명
 참가비: 약 450만원(일부지원 가능)
 상세사항 및 접수방법: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s://www.eduseoul.or.kr) / 접수마감: 2월13일(화) 17시

제136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때: 2월19일~4월15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신청): 02)727-2431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 2월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ip.or.kr) 참조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2월4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2월5일(월) 13시30분~16시30분

2024년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참석 바랍니다
 대상: 자녀의 스카우트 대원 활동을 원하는 부모님 및 대장 봉사에 관심있는 성인
 때: 2월3일(토) 14시, 2월4일(일) 14시 중(택1)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신청방법: https://url.kr/mekhu6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1월30일(화) 24시까지
 문의(기타): 02)762-9857(화~토 8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청년 평화감수성 피정 / 문의: 02)753-0815
 내용: 평화감수성, 콘서트강의, 미사 등
 대상: 20세~40세 미만 청년(선착순 30명)
 때: 2월24일(토)~25일(일) 1박2일 / 회비: 2만원
 곳: 도미니코 수도회(강북구 수유동)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403차 미사 1월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당: 함흥교구 흥남 본당, 함흥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3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2m.co.kr)

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명동대성당 영성교육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토) 10시~16시(개인강습+연습)	매월 15만원	010-8508-9384 담당강사(문자 문의 요망)
전례꽃꽂이	매주(금) 10시~13시(고급반) 매주(금) 13시~14시30분(기초반)	3개월 7만5천원(재료비별도)	010-5302-4593 담당강사
수어	매주(목, 금) 19시~21시	6개월 12만5천원(교재비 포함)	02)995-7394 에파타성당

특별 헌금 모금 현황(2023년 하반기)

2024년 1월 11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모금 일자	특별 헌금	참여 본당	금액(원)	지급처
7월 2일	교황주일 2차 헌금	221	488,211,85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월 17일	현미헌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21	519,125,954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0월 8일	군인주일 2차 헌금	220	632,427,940	군종교구
10월 22일	전교주일 2차 헌금	220	493,197,450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11월 12일	평신도주일 2차 헌금	220	455,526,474	(서울 80% / 전국 20%)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2월 3일	국군 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214	484,189,607	교구 소속 군종사제(50%) 교정사목위원회(35%) 경찰사목위원회(15%)
12월 17일	자선주일 2차 헌금	221	614,794,880	사회복지회
계			3,687,474,161	

*본당 218, 국제 1, 준본당 9, 선교본당 5 | 총 233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때, 곳: 2월3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월16일(금)~24일(토)·3월16일(토)~24일(일)·4월19일(금)~27일(토)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때, 곳: 3월28일(목) 16시~31일(일) 13시, 왜관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회비: 30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82-00018 (재)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눈꽃산행 2월14일~16일·2월23일~25일·2월27일~29일, 3월1일~4일(주자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주)·3월18일~20일·3월23일~26일(주)·4월11일~13일·4월16일~18일·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주)·5월2일~4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사순 40일 작정기도
 성모님께 우리들의 가정을 봉헌하는 기도
 때: 2월14일(제의 수요일)~3월24일(일) 40일간
 2) 사순준비 피정
 때: 2월19일(월) 10시~17시30분
 미사(강의-안수): 서한석 신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요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홍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3월5일~19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신난다 첫영성체교리 교사 연수(생활성서사)

때: 2월25일(일)·2월26일(월) 12시30분~17시30분
 회비: 2만원(교재비 별도) / 문의: 010-2531-5239
 곳: 생활성서사(전철 4호선 수유역 근처)

이론연구소 22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이론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65세 미만
 개강: 3월4일 / 실기시험: 2월17일(토)·2월19일(월) 10시30분(택1),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선교아카데미 제13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95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7일~10월17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원서접수: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CaFF영화제작워크숍 12기 수강생 모집
 때: 3월6일~6월15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2) 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월31일(수)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02)3276-7799

1)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신학·교리·기도)
 때: 2월20일 개강 / 2월16일까지 접수

기초과정(18주)	매주(목) 14시~16시(오후반), 19시~21시(저녁반)	권효섭 신부 비대면 온라인
심화과정(18주)	매주(화) 14시~16시	

2)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정기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103호
 4월11일(목): 권오면 신부 5월9일(목): 송봉모 신부
 6월13일(목): 홍기명 교수 사전 등록 후 무료 수강

예수회센터 불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비대면(Zoom, 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현장 강의	그리스도와 불교 간의 대화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서명원 신부 김영근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자기 치유-경계를 넘어서는 지혜(Trans-Sophia)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김영근 신부

모집

청년공간 모락모락 자원봉사자 모집(CLC)

청년들을 위한 3천원 김치찌개 주말식당
 내용: 설거지, 재료 준비, 홀서빙 및 관리
 때: (토)·(일) 10시~15시·16시~21시(5시간) 택일
 곳: 시흥1동 / 식사 제공, 봉사시간 인증
 문의: 070-4285-2459 한국CLC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2월3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끈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2월3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첫째주(목) 2월1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도미니코 수도원 월요 미사

영적 대화를 통해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곳
 때, 곳: 매주(월) 15시(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 4.19 민주묘지역에서 70미터) /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때, 곳: 2월2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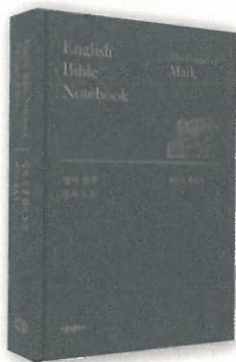
모집분야: 편집, 판매, 재단·제본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02)941-4139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사순 시기 추천 도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마르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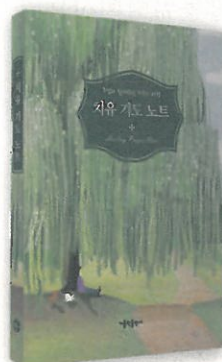
신간

영어 성경 필사 노트-마르코 복음서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만8천원

말씀의 은총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방법,
성경 필사

성경 읽기와 영어 공부를 함께
영어로 만나는 마르코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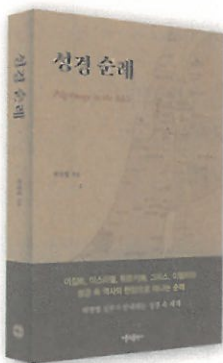
신간

치유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만7천원

하느님과 함께 걷는 치유의 여정
말씀·기도·묵상 안에서 회복을 청하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간구하는 1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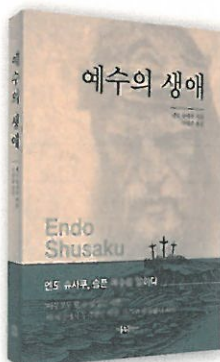
신간

성경 순례

허영엽 지음 | 2만2천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

허영엽 신부와 함께
성경 속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순례



사순 시기 추천 도서

예수의 생애

엔도 슈사쿠 지음 | 1만6천원

세계적인 작가 엔도 슈사쿠,
슬픈 예수를 말하다

그가 그려낸 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예수와 만나다



사순 시기 추천 도서

가시 속의 장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지음 | 1만2천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보내는
우리 영혼을 위한 안내서

어지러운 세상 속,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사순 시기 추천 도서

내 마음의 주치의

안셀름 그린 지음 | 1만5천원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내적 치유법

영성·심리·치유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마음의 처방전'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2월 9일(금)	오전 6시
2월 10일(토)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2월 11일(주일)	주일미사와 동일
2월 12일(월)	미사 없습니다.

- * 설날 합동위령미사 신청은 2월 6일(화)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날 당일 합동위령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 연도 : 오전 6시미사(미사 후 연도) 오전 9시, 11시미사 (미사 전 연도)

◎ 2월 9일(금)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금)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차루	9,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8일(주일) 오늘까지

◎ 성모신심미사 : 2월 3일(토) 오전 10시

◎ 연령회 미사

일시 : 2월 6일(화) 오전 10시
 매일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세계 병자의 날 미사 안내

2월 11일(주일) 미사는 환우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14일(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매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단식/금육)

◎ 성지 회수

2월 11일(주일)까지 성전 입구, 사무실 입구에 있는 성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날을 맞아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2월 3일(토) 오후 3시 ~ 4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5,000원

◎ 전례 말씀 봉사 참여 신청안내

2024년 사순시기 동안 전례 독서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 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사순시기 중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 독서)
 신청 : ~ 2월 4일(주일)
 문의 : 전례단 (010-6460-0801)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2월 15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1. 2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2	311 (15.4%)	233 (11.5%)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1월 15일~21일)

정수진칠만원 곽선모오천원
 익명일십만원 박명숙오만원
 박옥연이십만원 전성훈오십만원
 함영동일만원 마리클합창단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주일)

교무금13,430,000원
 주일헌금6,270,500원

입당	41	봉헌	212,217,218	성체	167,162,187	파견	77
----	----	----	-------------	----	-------------	----	----



오늘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